



미국가톨릭의료협회

Catholic Health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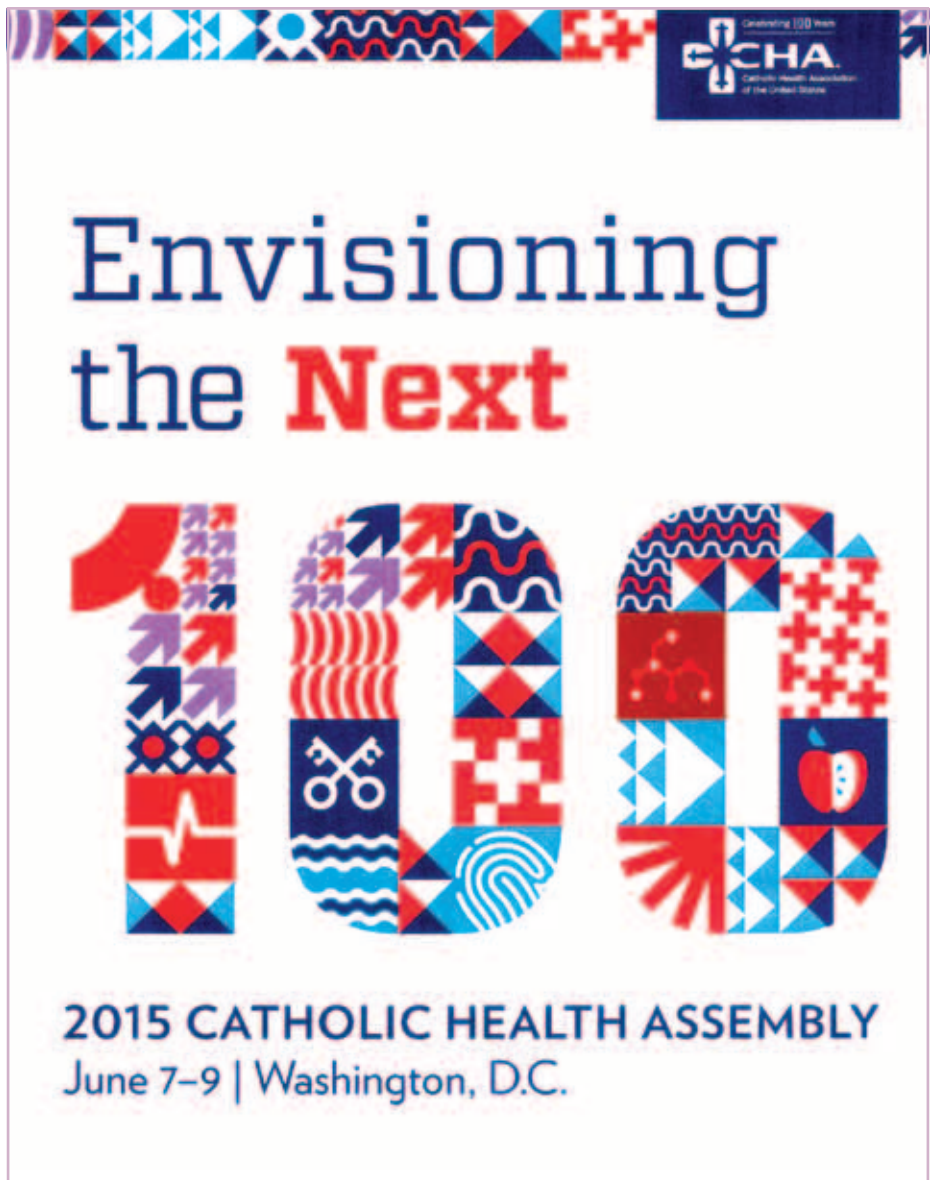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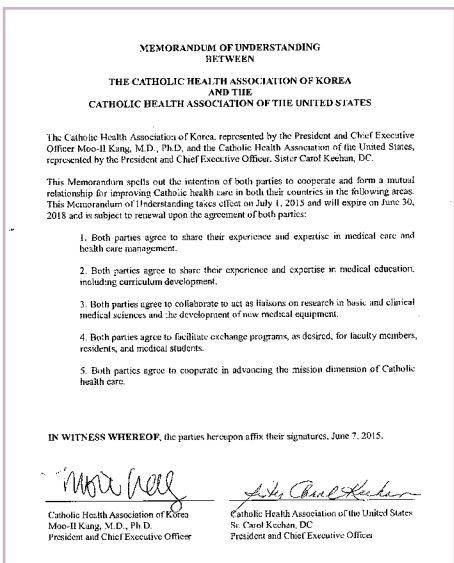
100주년 기념

일시 : 2015년 6월 6일(토) ~ 9일(화)

장소 : Washington Marriott Wardman Park

주제 : "Envisioning the Next 100"(향후 100년을 그리며...)

참석 : 1,000여 명



미국가톨릭의료협회

100주년 기념행사를 다녀와서



박진미 아니타 수녀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이사 / 대구파티마병원장



“Envisioning the Next 100”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한 세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한 세기를 준비하는 미국가톨릭의료협회 10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이제 10주년이 되는 우리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미래를 그려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에 기회를 주신 하느님과 지원해 주신 한국가톨릭의료협회에 감사드립니다.

6월 6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 D.C.의 매리어트 워드맨 파크(Marriott Wardman Park)호텔에서 열린 이 역사적인 행사에 미 전역의 가톨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 등 1,0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는데, 4개의 주제 강의와 관심 분야를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는 17개의 포럼과 15분씩 주제를 달리하는 9개의 교육 세션, 그 외에 이 경축 행사에 빠질 수 없는 리셉션과 수상자 만찬, 가톨릭의료협회 100회 생일 축하 등의 파티가 열려 진지한 회고와 기쁨을 나누는 자축이 어우러진 내실 있는 행사였습니다.

6월 6일은 초청자만 참석하는 소규모의 비공식 모임이 있었고, 모두가 참석하는 공식적인 행사 첫날인 7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에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국립 대성당(Basilica of the National Sh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에서 워싱턴 대주교 도널드 우엘(Donald Wuerl) 추기경님의 주례로 열린 성대한 개막미사로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설로 마치게 되었는데 참가한 미국 회원들도 완벽하게 잘 준비된 아름다운 행사였다고 감탄하였습니다.

100년, 한 세기를 어떻게 기념하는지 무척 궁금하여 참가를 문의한 것부터 시작되어 실제로 참가하여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이 자리에 함께한다는 것에 무척 감사했고 병원을 비우는 부담감 중에도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행사장 입구인 전시관에서는 미국에서 가톨릭 의료를 시작한 수도회들(주로 수녀회)의 사진이 전시되어 각종 재난 피해자들, 가난한 이민자들을 위한 치유 사도직으로부터 시작된 미국 가톨릭 의료 역사를 볼 수 있었고 으레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제약회사, 의료장비회사의 부스는 찾아볼 수 없고 대신 ‘Ethics Assessment Resource’ ‘Catholic Medical Mission Board’ ‘New Sponsor Formation Program for Catholic Health Care’ ‘Bringing Justice to Life in Catholic Health Care’ 제약회사로부터 약을 후원받아 가난한 지역에 약품을 보내는 사업을 하는 ‘HOPE’, Marketing과 Management 전문회사 등의 전시 부스가 있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의료기관뿐 아니라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의 소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사업체들, NGO 단

“가난하고 소외된 병든 이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보이면서 치유시켜 주심으로 온전한 한 인격체로 살아가게 구원해 주신 치유자 예수님을 이 시대, 이 지역사회에서 재현하고자 시작된 치유 사도직이 우리 한국가톨릭의료협회 모든 의료기관에서 활발히 수행되어 50주년, 100주년을 기념할 때 풍성한 복음화의 결실을 하느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⁹⁷⁾



체들의 활동이 함께 어우러져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도직이 미국 사회에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50개 주에 가톨릭 의료기관이 있고 미국 내 가장 큰 비영리 의료 단체로 미국의 환자 6명 중 1명이 가톨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을 만큼 그 숫자도 많은데, 이런 영향력 때문인지 이 행사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설로 종료되었습니다.

길게 줄을 서서 한 사람씩 백악관 보안 요원들의 꼼꼼한 검색을 통과하여 연설 시작 두 시간 전부터 연설장인 큰 홀에서 대기하면서도 그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 없이 모두 즐겁게 대통령을 기다리는 모습, 대통령이 연단에 이르자 큰 박수와 함성으로 한호하는 미국인들을 보면서 애국심과 함께 국가 최고 지도자에게 갖는 존경이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의 저력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톨릭 의료기관에서 이전에 보험이 없는 가난한 환자들을 잘 돌보아 주었음에 감사했고,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관리 개혁의 혜택을 본 환자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가톨릭 의료기관들이 이 제도의 정착에 협조해 달라는 요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행사 중간에 이번 미국 방문 목적의 하나인 미국과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MOU 협약 갱신을 하었는데, Carol Keehan 미국가톨릭의료협회 회장 수녀님이 한국의 참가를 기뻐하시면서 CEO Lunch & Dialogue에도 초대해 주시는 등 따뜻한 환대를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주제 강연 연사인 Blase J Cupich 시카고 대주교님의 Joseph Sullivan 주교님을 기념하는 강론 내용 중 짧은 대목을 인용하면서 저의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Joseph Sullivan 주교님은 뉴욕 브루클린과 퀸스의 가톨릭 자선회를 이끌면서 평생을 초기 AIDS 환자 등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신 분인데 “가톨릭 의료는 교회 사목의 필요한 한 요소일 뿐 아니라 교회 사목 전체의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병든 이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보이면서 치유시켜 주심으로 온전한 한 인격체로 살아가게 구원해 주신 치유자 예수님을 이 시대, 이 지역사회에서 재현하고자 시작된 치유 사도직이 우리 한국가톨릭의료협회 모든 의료기관에서 활발히 수행되어 50주년, 100주년을 기념할 때 풍성한 복음화의 결실을 하느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